

정례브리핑

2020.3.4(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오후 1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2시경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별도 일정 없이 부내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관입니다. 차관도 오후 1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제 청와대를 맹비난했는데 여기에 대한 통일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 김 부부장 명의의 담화문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위상이 강화됐을 가능성에 대한 통일부의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하여 따로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남북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위상 강화와 관련하여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김여정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하여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로 또 여쭙보고 싶은 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TV 등에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이 담화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한 뒤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